

■ 발행처: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 발행일: 2023.6.30 ■ 전화번호: 02-2272-1393 ■ <http://ccrps.dongguk.edu/>

1. 연구소 동정

■ 손지현 교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다양한 강연 실시

손지현 교수(신라대학교)는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다양한 강연을 하고 있다. 1인가구 지원방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등의 주제로 부산시 일대 복지관을 대상으로 자문 및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장선종합사회복지관(5월 11일), 덕천종합사회복지관(5월 23일),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5월 25일), 만덕종합사회복지관(5월 30일)을 방문하는 등 적극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장선종합사회복지관〉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 연구 활동

■ 장숙량,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발전방향 논의

지난 4월 22일, 장숙량 교수(중앙대학교)는 보건의 날 기념 제48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일차보건의료의 다학제교육과 다학제협업에 대한 이론과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4월 25일 열린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발전방향 토론회」에도 참여하여 환자 중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우리 연구소는 5월 26일 개최된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의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장노년층 정주이사 분석> 세션에서 참석하였다. 이 세션에서 문경주, 김정석 교수는 “Xboost를 이용한 장노년층의 정주의사에 미치는 요인 예측: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 성과보고회” 공동개최

우리 연구소는 지난 6월 14일,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 성과보고회”를 부산광역시, 반선호 부산시의원, 우리마을 복지법인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손지현 교수(신라대학교)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회적 가족을 돌봄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김일호 연구교수(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는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시범사업의 성과로 참여 마을과 구성원의 증가 및 높은 서비스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 성과보고회〉

■ 남춘호 연구원,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을 위한 현장형 워크숍 실시

남춘호 연구원(박사과정)은 노원구 함께걸음의료사회협을 방문하여 「아파트 고령자 페르소나분석」 워크숍(04.27)과 「서로돌봄공동체 평가체계 워크숍(06.08)」을 진행하였다. 노원구는 올해 지역사회 돌봄사업으로 「어르신휴센터」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함께걸음의료사회협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서로돌봄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파트 고령자 페르소나 분석〉



〈서로돌봄공동체 평가체계 워크숍〉

3. 학술논문, 저서,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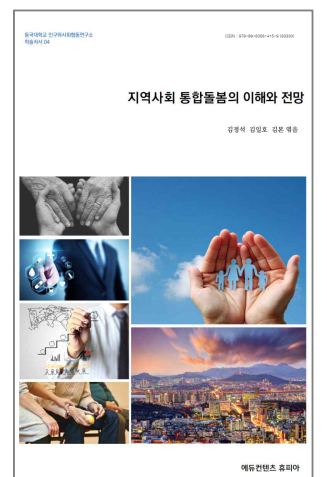
■ 손지현, 김정석, 김일호, 2023, “1인 가구 시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중간집 활용 가능성 연구 - 부산 사하구 케어안심주택 사례를 통해”, 한국케어매니지먼트 4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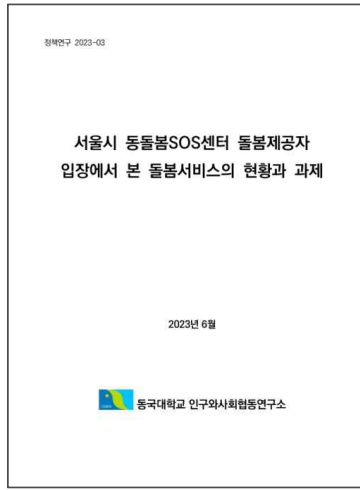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부산 사하구 중간집’ 사례를 통해 케어안심주택 사업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함. 이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1인 가구의 특성을 ‘관계의 취약성’으로, 살던 곳은 ‘고립이 아닌 자기주도성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지역사회는 ‘비공식적 지원과의 연계’로 정리. 서비스 진입, 서비스 진행, 서비스 결과로 구분하여 사하구 중간집 사례를 분석함. 서비스 진입에서 이용자에 대한 유연한 기준 적용과 상대적으로 다양한 발굴체계의 연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비스 진행에서는 공간이 아닌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특성을, 서비스 결과에서는 다양한 지역주민과 관계성을 확보한 자립과 다양한 주민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함. 이러한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논의사항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케어안심주택) 수행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와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방식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언함.

■ 지역사회통합돌봄 총서 및 연구보고서 총3권 발간

우리 연구소는 6월 20일자로 편서 1권 및 보고서 2권을 발간하였다. 발간된 편서 및 보고서는 연구 협력 기관 및 관련 기관에 자료로서 배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논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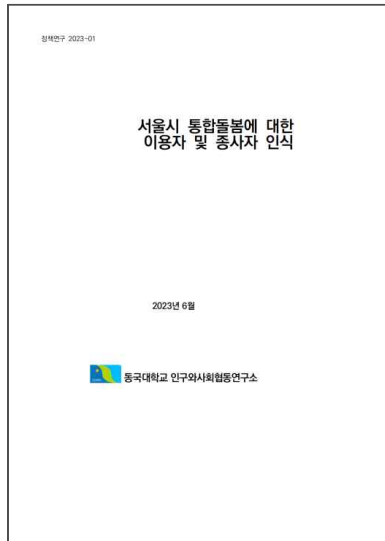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이해와 전망」은 연구소에서 그간 발간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논문들을 선정하여 엮은 것으로, 총3개의 주제를 담고 있다. 제1주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과 그 실천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2주제는 우리 연구소가 수행한 서울과 부산지역의 통합돌봄 기관(조직) 간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통합돌봄 협력 현황을 다루고 있다. 제3주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이용자인 노인에 초점을 두었다.





「서울시 동돌봄SOS센터 돌봄제공자 입장에서 본 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현장의 종사자(돌봄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입장에서 지역의 돌봄서비스 현장에 대한 이해와 돌봄서비스 욕구가 충족되어 가는 과정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 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과 이용상의 사각지대와 중첩지점을 파악하는 한편 돌봄대상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돌봄 종사자의 직종 간 협력과 갈등의 지점, 통합가능의 문제점과 장애인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서울시 통합돌봄에 대한 이용자 및 종사자 인식」 보고서에서는 노인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인식과 태도, 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전략수립 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출하였다. 해당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인식 및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 구축 및 연구·정책의 기초자료 생산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돌봄 욕구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콜로키움 알림(2023.07~2023.09)

- 제43차 콜로키움/ 2023.07/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이해와 전망
- 제44차 콜로키움/ 2023.08/ 서울시 동돌봄SOS센터 돌봄제공자 입장에서 본 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제45차 콜로키움/ 2023.09/ 서울시 통합돌봄에 대한 이용자 및 종사자 인식

5. 연구소 알림

■ 손지현, 보건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공동연구원인 손지현 교수(신라대학교)는 2023년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가졌다. 손지현 교수는 그동안 부산시 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타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왔다.



■ 2023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모전 연기

우리연구소에서 준비하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모전”은 내외부의 사정으로 인해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향후 더 알찬 내용과 구성을 마련하고 규모에 걸맞는 행사가 되도록 관련 학회 및 전문가집단과 적극 논의 중이다. 추가적인 진행상황은 하반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